

포스트모던 생태학과 공생과 차이로서의 환경정의*

최 병 두**

Postmodern Ecology and Environmental Justice as Symbiosis and Difference

Byung-Doo Choi **

요약 : 오늘날 생태위기는 흔히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간의 데카르트적 이분법을 기초하여 자연을 대상화하고 도구적으로 정복한 근대성의 결과라고 이해된다. 이에 따라 근대성에 반대하고 나아가 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본 논문은 근대성에 반대하여 새로운 담론 및 정치를 구축하고자 하는 포스트모던 패러다임 특히 탈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이나 이론들 속에 함의되어 있는 생태학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포스트모던 생태학에 근거한 환경정의론의 가능성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탈구조주의 일반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생태학적 논의와 환경윤리적 함의를 검토하고, 탈구조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명시적으로 생태학적 논의를 담고 있는 들뢰즈의 철학에서 '행동학'과 '리좀적 자연주의'에 초점을 두고 그의 뛰어난 생태학적 통찰력을 고찰하며, 끝으로 포스트모던 관점에서 '차이'를 이론화하고자 한 생물지역주의 그리고 특히 들뢰즈의 생태학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공생과 차이를 환경정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주요어 : 포스트모던 생태학, 탈구조주의, 들뢰즈, 공생, 차이, 환경정의

Abstract : The ecological crisis today can be seen as a result of modernity which has been developed on the Cartesian dualism of subject/object, and of human beings/nature, and thereby has objectified and subjugated nature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New environmental ethics hence should be developed urgently against modernity and to overcome the present ecological crisis. This paper aims to consider some implications for ecology and environmental ethics in the post-structuralists' arguments struggling against modernity to formulate new frameworks of discourse and politics, and to examine a possibility to theorize environmental justice on the basis of postmodern ecolog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 looks on ecological arguments and implications for environmental ethics in post-structuralism, then tries to gain prominent ecological insights, focusing on ethology and 'rhizomatic naturalism' in the philosophy of Deleuze, and finally interprets both bioregionalism as a theory of 'difference' from postmodern point of view and Deleuze's ecology in terms of symbiosis and difference, in order to conceptualize environmental justice.

Key Words : postmodern ecology, post-structuralism, Deleuze, symbiosis, difference, environmental justice

1. 서론: 탈근대적 모험으로서의 생태(철)학

현대 사회가 처해 있는 생태위기는 흔히 주체/객체, 인간/자연의 이분법 속에서 인류중심 주의적으로 발달한 근대성(modernity)의 산물로 인식된다. 즉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의 문제는 미신과 기아의 탈피를

위해 계몽과 진보의 이름으로 추진된 산업혁명과 이의 원동력을 제공했던 과학기술이 자연을 대상화하고 정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철)학은 인간중심적 이성에 기초하여 자연을 도구화한 근대성과 이의 주요 조건들에 대해 재성찰하고, 이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하나의 '탈근대적 모험 또는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KRF-99-041-C00606).

** 대구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 교수 (Professor,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Division of Social Studies, Taegu University).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포스트모던 페러다임은 탈근대적 윤리로서 '생태철학'(ecosphy)을 하나의 처방으로 제시하면서, 생태철학 또는 지구에 대한 철학적 예시가 탈근대적 조건을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한다. 즉, 탈근대적 도전으로서 생태철학은 지구를 단지 인간이 이용해줄 기를 기다리는 단순한 자원의 저장소 정도로 여겨 정복하고 소유하려는 기도를 저지하고자 한다. 생태철학은 자연과 문화, 자아와 타자, 정신과 육체간 안이하고 근거가 박약한 이원성을 극복하고자 나아가 인간 삶과 자연 또는 지구와의 관계를 조화시키고자 한다"(정화영, 1966).

이러한 포스트모던 페러다임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생태위기에 도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태철학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져야 할 것이다. 사실, 최근의 철학 및 사회이론, 그리고 예술의 영역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때로, 매우 모호하게 정의된다. 특히 이 용어가 포괄하고 있는 의미는 첫째 근대적 합리화의 시대를 지나 도래한 어떤 시대, 둘째 근대적 합리성에 대한 문화적 반작용, 셋째 모더니즘의 철학적 위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 등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최병두, 2000).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한 그리고 때로 서로 반대되는 의미들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용어에 포괄된다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지난 300여 년 동안 서구사회의 의식과 현실을 지배해온 근대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물론 포스트모던 페러다임 또는 담론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생태학 역시 근대성에 대한 반대 입장 및 원인 지유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이나 이론들을 포함하며, 이 가운데 심층생태학, 사회생태학, 생태페미니즘, 그리고 탈구조주의적 생태학 등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앞의 세 가지 유형의 주장들은 오늘날과 같이 생태위기를 초래한 근대성에 대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간 관계에 대해 명확한 생태학적 입장에 기초하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함께 '근본 생태학'(radical ecology)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반면, 탈구조주의적 생태론은 1960년대 프랑스 구조주의 이후 등장하는 일군의 저명한 포스트모던 철학자 또는 사회이론가들의 지술들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생태론적 함의를 지칭하며, 따라서 이들은 어떤 생태론으로 체계화된 단일한 주장이라기 보다는 복잡하고 난해하며 때로 비유적인 서술들 속에 산재해 있는 생태적 통찰력을 의미한다. 이들은 반(反)근대성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각기 서로 다른 주장들과 세부적으로 상이한 측면들을 강조한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포스트모던 생태학 가운데에서도 탈구조주의적 생태론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 내용과 환경정의를 위한 함의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실 어떤 점에서, "포스트모던 조건에 관한 성찰과 환경정의에 관한 성찰은 많은 공통성을 가진다"(Gare, 1966, 1). 이들 양자는 근대 서구 문명이 어떻게 현재 상태에 달하게 되었기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환경위기의 근원과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들과 같이, 포스트모던 조건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들의 대부분은 서구 문명을 억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사고 및 생활의 방식을 창출하기 위해 분투한다. 환경정의의 입장에서 보면, 탈구조주의자들은 근대성과 관련된 전체주의를 거부하면서, 정치적 다원성과 문화적 차이를 강조한다. "불확실성, 모호성, 차이 그리고 타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로서 근대성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스트의 비판은 한편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근대성에 내재한 해방적 목적이나 정의와 윤리의 가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 포스트모던 생태학은 자유롭고 탈중심화되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소규모 생물지역적이며 민주적이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을 꿈꾼다"(Zimmerman, 1994, 6-7). 포스트모던 생태학이 추구하는 이러한 전망은 근대성이 추구한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분명 어떤 새로운 진보적 윤리로서 생태적 정의와 해방을 그 목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포스트모던 페러다임 특히 탈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이나 이론들 속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함의되어 있는 생태학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포스트모던 생

태학에 근거한 환경정의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탈구조주의 일반에 함의되어 있는 생태학적 논의와 환경윤리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탈구조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명시적으로 생태학적 논의를 담고 있는 들뢰즈의 철학에서 '행동학'과 '리좀적 자연주의'에 초점을 두고 그의 생태학적 통찰력을 고찰하며, 끝으로 탈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차이'의 생물지역주의적 이론화 그리고 특히 들뢰즈의 생태학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공생과 차이를 환경정의의 입장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2. 탈구조주의의 생태학과 환경윤리

1) 탈구조주의의 생태학적 함의

197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 본격화되어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탈구조주의적 사상은 흔히 좋은 의미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불린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스트모던 생태학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유파의 생태학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탈구조주의'라고 칭하고자 한다. 탈구조주의는 구조주의가 수립한 성과에 관한 학문적 및 사회정치적 토대로부터 성장한 사상의 한 흐름이며, 특히 한편으로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스피노자(Spinoza), 니체(Nietzsche), 하이데거(Heidegger)로 소급되는 자연주의적 사상의 전통과 일반적으로 관련된다. 물론, 프랑스의 탈구조주의자들은 생태·환경운동을 포함하여 새로운 사회운동을 지지하긴 하지만, 들뢰즈(Deljeuze)를 제외하고는 생태계나 환경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콘리(Corley, 1997, 1-7)의 주장처럼, 대부분의 탈구조주의자들은 1968년 프랑스크혁명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경험한 사람들로서, "그들이 세계를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 - 또는 우리가 오늘날 생명, 공간, 그리고 서식지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연구함에 있어 - 주요한 변화는 생태적 의식에 많은 영향을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탈구조주의적 사고의 추동력은 생태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될 수

있다.

우선 탈구조주의자들은 근대 서구사상의 반자연주의에 대한 니체의 공격이나 서구 문명의 관료주의적 성향에 대한 하이데거의 공격을 이어 받아 근대성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저술 속에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생태적 함의들을 담고 있는 주장들을 제시한다. 즉 데리다(Derrida), 푸코(Foucault), 리오타르(Lyotard), 그리고 들뢰즈와 같은 프랑스의 탈구조주의적 사상가들은 '근대성의 전체 가정들에 대해 가져없는 비평'을 제시하면서, 예로 실존생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구 생태계의 파괴는 기본적으로 서구 철학의 이분법적이고, 인류중심적이며, 소외된 세계관에 소급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들은 비슷하게, 만약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환경을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Quigley, 1992). 나아가 탈구조주의자들은 서구 사상에 있어 권력과 지배에 대한 충동을 폭로하고, 이를 통해 실증적 과학뿐만 아니라 맑스주의에 기초한 지배적 담론들에 의해 억압된 담론들을 부활시켜서 정당화하고자 한다. 이들에 의하면, 그 동안 억압되었던 담론들은 세계의 지배를 지향하지 아니하며, 사물들이 존재하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환경 속에서의 '거주 방식'(하이데거의 의미에서)에 더 순응하고자 한다 (Gare, 1995, 87).

이러한 탈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은 직접적으로 생태적 담론에 개입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함의들을 제시하고 있다. 생태적 담론에 대한 직접 참여의 사례로서, 리오타르(Lyotard, 1989)의 한 논문을 들 수 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한 포스트모던 시대는 인간과 자연간,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간 더 큰 갈등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생태학은 민자에 대한 부자, 또는 제 1세계가 제 3, 제 4세계에 행했던 자연과의 전쟁과 관련된다 고 역설한다. 리오타르에게 있어, 생태학은 격리의 (정신적 및 물질적) 장소, 즉 파괴적 질서 또는 전략적 편성에 의해 체계적으로 통제되지 아니하는 사상의 오이코스(oikos) 또는 '거주가능지'를 위한 투쟁을 포함한다.

들뢰즈와 가타르(Guattari)는 이들 사상의 전반에 걸쳐 보다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생태적 이

론이나 주장들을 제시했다. 들뢰즈의 '생물철학'(biophilosophy) 및 '지(地)철학'(geophilosophy)에 관한 사고(에로, Deleuze and Guattari, 1991, 제 4 장 참조)는 철학적 사고를 생태계, 나아가 지구환경과 관련지우기 위한 것이다. 특히 들뢰즈가 스과노자의 철학으로부터 도출한 행동학(ethology)과 본 논문에서 '리좀적 자연주의'(rhizomatic naturalism)라고 부르고자 하는 것은 차이와 공생적 관련성에 근거를 둔 심오한 생태윤리를 발전시켰다(Hayden, 1997). 가타리 역시 들뢰즈와 공동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생태적 논의들을 명시적으로 제공했다. 특히, 그는 생태학을 사회생태학, 환경생태학, 그리고 정신생태학 등 3 가지로 범주화하고, 이들을 간에 상호연계된 생태학의 맥락 내에 위치지워진 일련의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생태적 실천들'을 제시한다(Guattari, 1989). 이와 같은 점에서 콘리(Conley, 1997, 7)는 대부분의 탈구조주의적 사상가들의 주장을 생태적 에토스의 일부로 명시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다음 절에서 이와 같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생태학 및 이와 관련된 윤리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반면, 구조주의에서 탈구조주의로의 전환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는 데리다는 특별히 생태학적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사실, 1970년대 및 80년대 그의 저서들은 니힐리즘, 자기존거성, 나르시즘 또는 이런 류의 다른 거대 서사이론들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생태담론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그의 주장에 따르면, 생태적 문제는 생태중심주의 특히 심층생태학처럼 자연 또는 생태계를 형이상학적 절대자로 전환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적 억압에 대한 그들의 책임성을 포함하여 모든 '중심'주들을 활성화시키는 동일한 통제-추동에 의해 동기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자연 그 자체 또는 전체로서의 자연과 결코 만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자연은 사회적 현상으로, 그 의미는 항상 특정하고 국지적인 담론들에 의해 구축하게 된다. 즉 그에 의하면, '자연은 사회적 산물'로 이해된다(Zimmerman, 1994, 138). 뿐만 아니라, 데리다는 최근 보다 정치화된 자서(Derrida, 1994)에서

정치이론에 출몰하는 맑스의 '유령'에 관해 분석하면서, '생태적 인지'의 유령을 고취시키고 있다. 예로, 국제자본의 메시아적 요소에 관한 그의 분석은 생태정치에 중요하다고 콘리(Conley, 1997, 13)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데리다의 독해에서 실제 생태학이 명시적으로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생태학의 명시적 출현을 목격할 수 있다.

탈구조주의는 이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생태학적 시사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생태적 담론, 특히 생태·환경윤리와 관련된 담론 및 이와 관련된 권력분석이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에스코버(Escobar, 1996)에 의하면, 탈구조주의적(정치)생태학은 첫째 자연은 사회적으로 구축된 것이라는 믿음과 둘째 자연에 관한 지식은 담론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첫째 믿음과 관련하여, 탈구조주의는 언어를 단지 '실체'의 반영으로서가 아니라 실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해한다. 즉 담론은 사회적 실체가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되는 과정이다. 또한 둘째 주장과 관련하여, "자연의 생성과 진화, 그리고 자연이 역사적으로 생산되고 인지되는 담론 및 실천의 생성과 진화 간에 연계"가 강조된다(Escobar, 1996, 46). 이러한 특성들에 추가하여, 탈구조주의는 셋째 모든 담론은 권력의 생성 및 유지와 내재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과 넷째 따라서 모든 이론적 및 윤리적 거대서사들은 부정되고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된다. 즉 푸코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지식은 권력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담론에서 나타나는 '진리의 게임'과 '권력 관계'의 내재적 공존은 '지식/권력' 관계로 이해된다(최병두, 1988). 따라서 이러한 지식/권력의 내재적 관계를 탈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거대이론이나 윤리적 규범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폭로하고 이를 해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탈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탈구조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많은 논평가들은 긍정적인 비평을 제시한다. 예로, 짐머만은 한편으로 근대성이 추구하는 총체적 통제 및 이를 합리화시키는 생태적 지식/권력의 비판에 대한 탈구조주의적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사회·

생태적 문제를 유발하는 조건들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을 포기하기 때문에, 포스트모던 이론은 신보수주의적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Zimmerman, 1994, 6-7). 사실 탈구조주의자들의 담론적 주장들을 현실 문제와 관련시켜 보면, 어떤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Havrey, 1996; Peet and Watts, 1996 참조). 즉 자본에 관한 고찰 없이 오늘날 생태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가 세계화와 정보화 과정을 촉진하면서, 전지구를 하나의 생산단위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세계적 거대담론을 거부하고 파편화된 세계를 '텍스트'로 이해하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 한계를 가진다. 게르(Gare)는 여러 탈구조주의자들의 통찰력을 살펴 보면서 매우 공감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환경적 이슈들에 기여한 바를 고찰하지만, 결국 이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점이 부족함으로 발견한다. "텍스트를 능가한 초텍스트, 그리고 다른 텍스트를 종합하는 텍스트에 대한 이들의 반대[에도 문제성이 있지만], 탈구조주의자들은 환경론자들에게 세계적 위기가 있다는 믿음을 받아하고 [나아가]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종류의 대응을 만들어 낼 방안을 전혀 남겨 놓지 않았다" (Gare, 1995, 98-99).

탈구조주의적 사상가들은 근대성에 내재된 데카르트적 이원론과 사지연적 세계관의 해체를 강조하고 그 동안 이러한 전통 속에서 억압되었던 주변적(즉 자연주의적) 담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탈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은 오늘날 생태위기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 원인들에 대한 과학적 추론이나 이론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구조주의의 문제성은 재평가될 수 있다. 우선, 많은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탈구조주의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태위기 또는 보다 포괄적으로 근대성의 위기를 유발하면서 포스트모더니티라고 불리는 문화적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탈구조주의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성은 이들이 일반적으로 담론적 표현과 '현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사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거대 서사'를 근대성의 이데올로기로 간주하는 탈구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어떤 문화적 가공 또는 예술

적 고안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유의성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현실'과의 '상응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 또는 지속성에 의해 측정된다고 주장한다 (Lyotard, 1984 참조). 즉, 탈구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그들의 주장들은 비록 현실의 경제·정치적 상황 자체를 분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생태적 담론 분석의 필요성 주장과 실제 분석을 통해 제시한 풍부한 함의들은 생태학적으로 매우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2) 탈구조주의적 환경윤리

다른 한편, 탈구조주의자들은 사회를 이해하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윤리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래에서 논의할 바와 같이, 예로, 푸코의 저자들은 보편적 윤리를 부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환경윤리를 위한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들뢰즈는 라이프니체, 스피노자, 니체 등의 자연주의적 철학의 독해뿐만 아니라, 현대 자연과학 및 생물학의 이해를 통해 차이(difference)와 공생(symbiosis)의 개념 등을 강조하는 어떤 환경윤리(그리고 생태정치)를 정립한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리오타르의 주장을 재평가해 볼 수 있다. 즉 그는 어떤 수준에서의 합의의 필요성에 관한 하버마스의 '모던적' 주장을 비판하면서, "합의는 진부하고 의심스러운 가치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의 가치로서 정의는 진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심스러운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합의와 연계되지 아니한 정의의 사고와 실천에 도달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Lyotard, 1984, 66)¹⁾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부분적으로' 긍정하면서도, 환경윤리적 측면에서 푸코의 저작에 내포된 통찰력을 재검토해 볼 수 있다.

푸코에 의하면, 실제 또는 진리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채택은 점점 무의미하거나 또는 부적절하게 되었다. 그가 주장하는 지식의 고고학 및 지식/권력의 관계에 의하면, 근대 과학은 '진리를 향한 의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진리'는 맥락-특정적인 것으로, 특정한 세계관(즉 담론) 또는 특정한 페르다담의 공

동체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페라다임적 지식 또는 이와 관련된 윤리는 기존의 권력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권력관계의 존재는 항상 특정한 도덕윤의 집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Foucault, 1980; 최병두, 1988).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푸코는 자연주의적 정당화에 기초한 현대 '환경윤리'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을 것이다. 즉, 그에 의하면, 생태학은 자연의 위험성 또는 역으로 그 순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을 규율하고자 하는 지권력(geo-power)과 내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Luke, 1999; Quigley, 1999).

사실, 관례적인 환경윤리 또는 이론들은 결국 '자연세계'란 인간이 순응해야만 하는 초월적 규범이나 목적론적 원천이라는 믿음에 그 정당성을 두고 있다. 이러한 환경윤리에 의하면, 절대적 신과 과학적 진리에 대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자연'은 인간의 행동과 가치를 평가하는 규범적 척도가 된다. 예로, 자연법 사상처럼, '자연의 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이로부터 도출된 규범과 해법 역시 특정한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여 보편적이라고 주장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절대적 자연에 의존하는 이러한 윤리는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된다. 즉 롤스톤(Rolston, 1992, 135)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윤리가 다윈의 세기가 근대적이게 됨에 따라, 윤리가들은 어떤 결론, 즉 도덕은 자연적인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결론에 안주하게 되었다. 과학은 자연의 역사와 법칙을 사술하고, [반면] 윤리는 인간의 행동과 도덕적 법을 제시한다. 이들 둘은 혼동하는 것은 범주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과 윤리간의 이러한 분리는 사실 자연/인간 사이를 분리하는 데카르트적 이원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된다.

푸코는 때로 직접적으로 생태적 문제를 다루거나 또는 이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로, 그는 진략적 진리게임, 권력/지식, 저항 등간의 복잡성을 예시하기 위하여, 생태운동을 사례로 들었다. 그에 의하면, 생태운동은 "자연, 생명체의 과정의 평형상태 등에 관한 지식을 명분"으로 한다

(Foucault, 1988, 15). 이러한 생태지식(eco-knowledge)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배권력의 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규율적으로 집합되며, 나아가 '지(地)권력'의 체계를 만들어내면서 '녹색 통치성'(green governmentality)을 위한 노력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Luke, 1996; 1999). 이와 같이, 규율적 생태지식이 만들어낸 지식/권력은 궁극적으로 현대 사회의 생태위기를 유도하면서, 모든 것을 생태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변화시킨다. 따라서, 푸코에 의하면, 현재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저항은 어떠한 도덕적 가치나 이상적 규범에 준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러한 (생태적) 위험으로부터의 탈주, 즉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다. 저항은 물론 힘의 관계 또는 힘의 장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권력 관계는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어떤 경우 개인이나 집단에게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푸코의 입장에서 보면, 생태운동은 현대 사회의 생태적 위험 속에서 자연과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저항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의문이 제기된다. 푸코에게 있어, '윤리'는 필요한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윤리가 필요한가? 분명 윤리는 완전히 부정되지 않는다. 대신, 기존의 '윤리'라는 단어는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푸코와 같은 학자들은 '자유의 실천' 또는 '존재의 미학'(aesthetic of existence)과 같은 용어들을 더 선호한다. 탈구조주의자들은 초역사적, 보편적 인간 본질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따라서 윤리를 정당화시키는 인간주의적, 본질론적 또는 정초주의적(foundationalist) 프로젝트를 강하게 부정한다. 그러나, 어떤 비정초주의적 윤리의 가능성은 인정될 수 있는가? 푸코는 인간 본질이라는 사고는 부정하지만, 저항, 자유, 정체성 등의 개념은 유지한다. 그에 의하면, 저항은 어떤 존재론적 또는 절대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맥락에 근거하여 현재를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적 자유이며, 이러한 자유는 권력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권력 관계로 인해 가능하게 된다 (Foucault, 1988). 이러한 자유를 통해 형성되는 정체성은 사회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등장하는 경

게들 내, 또는 라캉(Lacan)이 '구조의 빈 장소'(empty place of the structure)라고 부른 것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의 후기 저작에서, 푸코의 윤리는 '존재의 미학' 또는 존재의 예술로서 등장한다. 이는 인간 자신의 행위 법칙을 설정하고 그들 자신을 전환시키면서 그들의 생활이 어떤 심미적 가치를 가지도록 하는 의도적 및 자발적 행위를 의미한다(Foucault, 1984, 10-11). 푸코는 회담시대 이후 윤리의 상이한 측면들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Davidson, 1986; Darier, 1999). 첫째, 도덕률(moral code)로서의 도덕성: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성은 개인들이 규범화되는 메카니즘을 의미한다. 여기서 도덕성은 가족, 교육기관, 교회 등과 같이 다양한 처방적 기관들을 통해 개인들에게 권해진 일단의 가치와 행위 규칙을 지칭한다. 둘째, 행태(behavior)의 도덕성: 권유된 규칙이나 가치와 관련하며 개인들의 실제 행태에 함의된 도덕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도덕성은 개인들이 행위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방식, 또는 이들이 외적인 도덕률에 대해 순응하거나 또는 저항하는 방식을 뜻한다. 셋째, 수행(conduct)의 도덕성: 자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관한 반성적 노력으로서의 도덕성을 말한다. 이 세번째 도덕성 때문에 앞의 두 가지 도덕성은 무시해도 좋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수행의 도덕성, 즉 심미적 존재를 위한 조건을 제공한다.

우리는 윤리에 관한 푸코의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푸코적 환경윤리를 유지해 볼 수 있다. 먼저, 어떤 행동이 환경적으로 윤리적이기 위해서, 어떤 환경적 규칙이나 가치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순응은 한 개인을 윤리적 주체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 달리 말해서 개인은 윤리적 주체로서 '자아 형성'을 이루기 위한 자각(self-awareness)이 필수적이다. 자연세계에 관한 고도의 자각에 기초한 환경윤리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환경윤리는 "환경 및 이와 관련된 개인의 수행을 구성하는 기존의 한계에 대한 자기 성찰, 자기 지식, 자기 고찰"을 의미한다(Darier, 1999, 227)" 이러한 생태적 자각은 생태적 저항으로 이어진다. 생태적 저항은 단순히 자연의 파괴에 반대하는 잠재적 도구로서가 아니라, 궁극

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위한 행위이며, '존재의 미학'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항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시키고, 다르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양식을 구축하는 것이다. 요컨대, 푸코적 저항에 기초한 환경윤리는 인간이 맺고 있는 자연과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조건들에 대한 항구적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현재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저항에 근거한 존재의 미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푸코적 환경윤리는 심층생태학과는 달리, 자연과의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을 추구하면서 생태윤리적 주체의 형성과 이를 위한 생태적 자각을 강조한다. 또한 이에 기초한 생태적 저항은 오늘날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 생태적 위험을 폭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운동을 정당화시킨다. 생태적 저항은 생태적 위험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고 및 생활양식에 있어 차이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푸코적 환경윤리에서, 여전히 남는 문제는 데카르트적(즉 절대적) 정체성의 문제성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태적 자각을 형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절대적 또는 외적 준거의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저항이 어떻게 '생태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푸코의 지식/권력의 개념에 의하면, 한 행위가 생태적으로 친화적인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어제 진정한 생태적 저항이 오늘 이에 반하는 지배적인 환경적 실행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푸코의 입장에서 보면, 생태적 친화성에 대한 평가의 준거는 결국 저항이 이루어지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저항이 생태적으로 긍정적인가의 여부는 단지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만 평가될 수 있다.

3. 들뢰즈의 행동학과 리즘적 자연주의

탈구조주의자들 가운데 들뢰즈는 가장 명시적으로 생태학적 주장들을 제시한다. 사실 그의 저작들 전체는 기본적으로 생태학적 통찰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1968년 <차이와 반복>(Différence

et répétition)에서 정점을 이루는 그의 초기 연구에서부터,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특히 1980년의 <천개의 고원>(Mille Plateaux)에 관한 가타리와의 공동연구를 거쳐, 1991년 가타리와 공저한 <철학이란 무엇인가>(Qu'est-ce que la philosophie ?)에 관한 그의 마지막 저작에 이르기까지, 들뢰즈는 자연주의적 생명철학과 적·반적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이나 용어들을 구사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립·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여러 비판적 연구들이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생물학적 연구와 이론은 들뢰즈의 철학에서 중심적 준거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Hansen, 1999). 그렇지만, 들뢰즈의 철학은 이와 같은 생태학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매우 세련되고 독특하게 철학적 향기를 남기고 있다.

들뢰즈는 왜 이러한 자연주의적 철학을 택했는가? 그 자신의 답변에 의하면, 자신의 저서들에 등장하는 "자연주의의 기본적 이질 가운데 하나는 자연세계의 다원성을 물질적 차이의 실질적 조건 및 생성(becoming)의 과정과 결합시킨다는 점이다"(Deleuze, 1990, 261-3). 즉, 그는 "지구상에 상호연계된 삶의 차이들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이를 존중하는 한편, 자연 속에서 인간의 장소를 강조하는 생태적 관심"을 고조시켰으므로, "생태적 다원성의 변창이라는 점에서 사회정치 권력을 지지하는 사고와 감성의 새로운 방식을 창출"하고자 한다(Hayden, 1997, 185). 이와 같이, 한편으로 들뢰즈의 철학은 생태학적 함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함의들은 복잡하고 난해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저술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생태학적 통찰력을 완전히 제시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생태학적 주장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나아가 들뢰즈가 스피노자의 철학을 재구성하면서 강조한 '행동학'과 <천개의 고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리좀적 자연주의'의 의미를 제시하고, 환경정의론의 관점에서 그 유의성을 드러내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들뢰즈의 생태학은 생명의 인간적 양태와 비인간적 양태간 다양한 상호연계를 조명하는 스피노자적 자연주의를 축구하면서 "윤리적

및 정치적 고려와 생태적 관심을 결합시킬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그의 생태학은 예로 심층생태학자들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절대적이고 정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가치로 자연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환원주의적 성향과는 정반대된다. 들뢰즈는 인간적인 것과 비인간적인 것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스피노자의 '내재성의 평면'(plan d'immanenc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 간의 차이와 관련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는 한편, 보다 직접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예로, 그는 지철학(geo-philosophy)을 도입하면서 (Deleuze and Guattari, 1991, 제 4장 참조), 그리스어인 'oikos'와 관련된 의미를 가운데 하나인 환경(milieu)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환경은 지구(자연 또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들, 성분들, 에너지원들, 그리고 유기체들간 상호작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과 관련된 단어로 이해된다. 생명체와 그 환경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생태학을 취함으로써, 환경은 위치, 서식지 또는 생태적 상호작용과 만남의 매체가 된다. 완전한 환경은 여러 세부환경(기후, 지리, 인구, 토양, 미생물 등)의 관련적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며, 절대적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인 균형상태를 보유했다. 왜냐하면 환경은 유연한 경계와 변경가능한 관련성들에 기초하여, 그 결과로 그 세부환경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환에 개방적이기 때문이다(Hayden, 1997, 186). 이러한 들뢰즈의 생태학은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도입한 '행동학' 그리고 현대 생물학의 이해를 통해 제시된 '리좀적 자연주의' 등을 통해 매우 복잡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게 된다.

가타리도 기본적으로 들뢰즈와 공동된 생태학적 사고를 하지만, 그는 1989년 독자적으로 '3가지 생태학'(Les trois ecologies)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할 정도로 생태학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3가지로 구분되는 그러나 상호연계된 생태학의 맥락 내에 위치지워진 일련의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생태적 실천들'을 제시한다. 여기서 3가지 생태학이란, 사회생태학, 환경생태학, 그리고 정신생태학(mental ecology)을 말하며, 이들은 각각 사회적 관계, 자연환경, 그리고 인간 주관성의 '생태적 기록부'(register)에 상응한다. 환경은 여러 가지

중첩되는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자연적 기록부의 바깥에서는 생각될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을 동시에 취하게 되면 3가지 기록부는 환경적 탈평형상태, 사회적 존재의 점진적 퇴락, 그리고 생각과 행태의 경직된 표면화의 결합된 효과에 의해 지구상의 생명에게 노출된 위험들을 논의할 수 있는 '윤리적-정치적 집합'을 요청하게 된다 (Guattari, 1989, 11-12). 가타리는 문화와 자연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자연과 문화에 관한 우리의 구성을 모양지우는 정신적 생태학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타리는 새로운 생태적 주체성의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내재적이며 항상적으로 생성의 상태에 있는 생태-주체성을 고안한다. 생태-주체성은 영토 속에서, 즉 시간과 공간의 주체적 경험 속에서 전개되며, 이에 의한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는 3가지 기록부로 구성되는 일반적 생태철학의 노선을 따라 가능해진다. 요컨대, 가타리의 생태학은 "거주의 예술, 정신적 및 물리적 공간의 점유의 예술, 그리고 영토의 지도노그리의 예술"로 정의된다 (Hayden, 1997, 202).

이러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생태학적 사고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논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행동학'과 '리즘적 자연주의'를 들 수 있다. 행동학(ethologie)은 "들뢰즈의 철학에서 가장 독창적인 기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주제로서, 원래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동물학의 일부였다 (전태원, 2000). 들뢰즈는 윤리학과 (동물)행동학이 모두 에토스(ethos)라는 회랍어 어원에서 유래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동물행동학을 인간들의 행동과 동물들의 행동, 나아가 존재자 일반의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행동학으로 확장시키고, 이에 기초하여 윤리의 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한다. 들뢰즈가 이와 같이 행동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초월성의 철학, 특히 데카르트적 이원론을 극복하고 '의성의 존재론'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행동학은 의의성(univocite)의 존재론적 특징으로 첫째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론적 및 형식적 동등성, 둘째 모든 존재자들의 내재적 역할을 통한 독자적 실존을 함의한다. 이러한 내재적 '존재 역할'은 인간과 동물, 생물과 무생물, 주체와 객체,

내부와 외부 사이에 설정되어 있는 범주적 간극을 무효화하거나 적어도 부차화시킨다.

이러한 들뢰즈의 행동학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스피노자의 철학이다. 스피노자의 사상에서, 자연은 신의 동가자로서 힘의 무한한 전체이면서, 또한 표현적이며 비목적론적인 '차이의 평등'(equality of difference)으로 이해된다 (Hayden, 1997). 특히 들뢰즈의 해석에 의하면,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적 존재들은 두 가지 측면, 즉 관계의 측면과 역량의 측면에 따라 구성된다⁴⁾ 즉, "행동학, 이것은 무엇보다도, 각 사물들을 특징짓는 빠름과 느림의 관계들과, 변용시키고 변용하는 능력들에 대한 연구이다" (Deleuze, 박기순 역, 1969, 186). 한편으로 관계적 측면에서, 모든 존재자들은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의 특정한 관계를 통해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의 개체로 구성되며, 이 관계가 유지되는 한 하나의 개체는 계속해서 그 개체로 존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역량의 측면에서, 모든 존재자들은 실제의 무한한 역량을 본질함으로써 자신의 내재적 역량을 가지고, 이 역량은 다른 존재자들에 의해 변용되고, 또한 다른 존재자들을 변용시킬 수 있는 능력 속에서 표현된다. 이러한 점에서 스피노자의 행동학을 해석하면서, 들뢰즈(위의 책, 186)는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한다.

"예를 들면, 한 동물이 주어질 때, 이 동물은 이 무한한 세계 속에서 어떤 것에 무관하지, 어떤 것에는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어떤 것들이 그것의 영장물들인지, 어떤 것들이 그것에 독이 되는지, 그것은 그의 세계 속에서 무엇을 취하는 지가 관계들과 능력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든 점들은 그 대칭점을 갖는다: 식물과 벌, 미와 파리, 따라서 한 동물, 한 사물은 그것이 세계와 맺는 관계들과 분리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스피노자 그리고 들뢰즈의 행동학은 자연 속의 이리저리한 개체들은 신진대사의 빠름과 느림(또한 작용과 반작용의 느림과 빠름) 그리고 상호 변용되고 변용하는 능력에 의해 구성된다. 이러한 행동학은 한 개체와 환경 간의 관계를 내적 및 외적 관계의 선택과 투사로 이해한다: "내부는 단지 선택된 외부일 뿐이며, 외부는 투사된 내부일 뿐이다" (위의 책, 186). 또한 행동학은 상이한 사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들과 능력들의 결합, 즉 존재자들의 '공생성'을 연구한다

(위의 책, 187), 즉 모든 존재자는 자신에게 이로 운 존재자들과 마주칠 수도 있고, 자신에게 해로운 존재자들과 마주칠 수도 있다. 자신에게 이로 운 존재자에 의해 변용될 경우 각 존재자는 긍정적으로 존재 역량의 증대를 획득하고, 나아가 개체로서 자신의 본성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각 존재자는 부정적으로 존재 역량의 감소를 경험하고 심할 경우 자신의 본성이 파괴되어 그 존재가 해체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들뢰즈는 “인간적 및 비인간적 생명체들의 비이원론적 연속성과 그들의 복합적인 공생적 상호관련성들을 강조하기 위하여” 스피노자의 행동학을 독창적으로 해석한다 (Hayden, 1987, 194).

들뢰즈가 스피노자의 철학으로부터 창출한 이러한 행동학은 전통적인 생물학적 범주 구분을 해제하면서 (생태)윤리학에 새로운 개념, 즉 내적 차이에 근거한 ‘내재성의 윤리’를 도입하게 된다. 이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행동학의 관점에서 보면, 각 개체들은 단순히 형태적, 기관적 차이가 아니라 내적, 구조적 차이를 표현한다. 따라서, 생물학적 기관이나 발생론적 계통을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 분류는 존재자들의 분류와 평가에 중요하지 않게 된다. 예로, 행동학의 관점에서 보면, 수레를 끄는 말은 경주용 말보다는 수레를 끄는 소와 더 가까운 것으로 간주된다 (Deleuze, 박기순 역, 1998, 184). 왜냐하면, 들뢰즈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각 존재자들의 기관의 능력이 아니라 조직방식이 아니라, 각 존재자들의 존재 역량 그리고 존재자들 상호간에 미치는 반응 능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들뢰즈의 행동학은 윤리의 관점에서 선, 악이라는 도덕적 가치나 더 나아가 일체의 초월(혼)적인 도덕적 판단기준에 관한 문제를 무효화한다. 즉 들뢰즈는 스피노자와 니체에 따라 도덕적 가치의 문제를 좋음과 나쁨이라는 내재적 역량의 문제로 전환시킨다. 특히, 내재성의 윤리는 존재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서(예로, 슬픔보다는 기쁨)를 더 가치 있고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나아가 내재성의 윤리는 새로운 실존 양식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조건적 변혁과 새로운 존재양식의 창출을 위한 정치적 실천과 긴밀하게 연계된다.

이와 같은 행동학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공저한

대표적 역작, <천개의 고원>(Deleuze and Guattari, 1980)에서 ‘리즘적 자연주의’로 확대, 발전한다’ 특히, 리즘적 자연주의는 보다 구체적이고 비유적인 생태학적 용어들을 구사하면서, 특히 내재성의 윤리에 기초한 사회적 조건의 변혁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구체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하면, 기존 이분법의 이항적 논리를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들은 어떤 통일성을 찾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다양성을 파악하는데 주축적(pivotante) 뿌리가 이분법적 뿌리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의 노력도 “결코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했다”(5). 들뢰즈는 이러한 노력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항적 논리에 기초한 수목모형(arbolic model)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날 “세계는 중심축을 잃어버렸고, 주제는 더 이상 이분법을 만들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6) 끊임없이 증식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하여, 리즘모형(rhizome model)을 제시한다. 리즘이란 원래 식물학 용어로서, 줄기가 변태하여 생긴 땅속줄기[根莖]을 의미한다. 수목조식은 중심줄기가 점차 작은 잔가지로 분기하여 뾰는 계통적 구조를 지니는 반면, 리즘조식은 중심을 갖지 않는 이질적인 선들이 상호교차하고 다양한 흐름들과 다양한 방향들로 복수의 선분들을 만들면서 사방팔방으로 뻗쳐 나가면서 망상구조를 이룬다.

들뢰즈에 의하면 이러한 리즘적 형태가 가지는 특징적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두 번째 원리는 접속(connection)과 이질성(heterogeneity)이다. 점과 절선을 고정시키는 나무나 뿌리와 달리, “리즘 내 어떤 점도 다른 점과 접속될 수 있으며, 접속되어야 한다”(7). 이질적인 코드화 양식에 따라 집합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접속은 “권위주의적 통일이 아니라 욕망기계의 무한한 꿈틀거림”이다. 달리 말해, 리즘은 “부분 운동들을 정리하거나 총체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함께 하나의 구도로 접속시키는 문제”(6)이다. 세 번째 원리는 다양성(또는 복수성, multiplicity)이다. 수목형의 사이비 다양성과는 달리, 리즘의 다양성은 이른바 ‘신경성유의 다양성’으로, 그 차원은 “그 위에 수립되는 접속의 수에 따라 증가”한다. “다양체(복수성)는 그들이 그 모든 차원을 차지하고 채우는 한 평면적”이라는 점에서, ‘일의성

의 평면'이다 (9). 일의성의 평면에서 다양성이 다른 것들과 접촉함으로써 그 성질을 변화시키며, 따라서 리즘은 '탈주의 선' (line of flight) 내지 탈영토화의 선에 의해 정의된다.

네 번째의 원리는 비기폭적 단절(asignified rupture)이다. 이는 "리즘이 어떤 지점에서 깨지고 부수질 수 있지만" (단절의 발생), "이러저러한 선들을 따라 또 다른 선들을 따라 재생"함을 의미한다 (9). 예로, 개미떼는 "끊임없이 재생되면서만 그 다수가 파괴되는 동물적 리즘을 형성하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다. 들뢰즈가 제시한 또 다른 잘 알려진 사례로, 말벌과 오르키데(orchidée, 난초의 일종)는 공생적 관계를 통해 리즘을 만든다. 다섯째와 여섯째의 원리는 지도제작술(cartographie)과 복사술(複寫術, décalcomanie)이다. 수목모형에서 발생적 축이나 심층구조를 통해 무한히 재생되는 것은 위계구조의 논리와 모상(模像, tracing, calque)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리즘은 "모상이 아닌 지도(map, carte)다. ... 지도는 그 자체로 리즘의 부분이다. 지도는 열려있으며, 모든 차원들과 접촉될 수 있으며, 분해할 수 있고,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으며, 끊임없는 변용의 수용에 민감할 수 있다" (12). 예로, 오르키데는 말벌의 모상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리즘의 한가운데서 말벌과 함께 지도를 만든다. 모상이 언제나 같은 것(통일적/동일적/위계적/중심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반면, 지도는 '다수의 입구'로 들어가는 실험을 향해 있다.

푸코가 '엔젠기는 들뢰즈의 세기가 올 것'이라고 천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들뢰즈의 행동학과 리즘적 자연주의는 강력한 이론적 및 현실적 힘을 가진다. 우선 이론적 함의로서, 스피노자적 행동학과 리즘적 자연주의를 통해, 들뢰즈는 서구 사상에서 데카르트 이후 초월주의 전통뿐만 아니라 해결 이후의 변증법적 전통을 극복할 수 있는 사유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¹⁾. 들뢰즈의 행동학은 형이상학적인 정조주의의 기반 또는 정적인 이분법적 대립 없이 인간적인 것과 비인간적인 것간의 상호관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리즘적 자연주의는 이론법적 대립항으로 설정되는 전통적 서구 철학이 안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이질성의 접촉을 통한 복수성과 공생에 관

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들뢰즈의 자연주의는 이항적 결합에 의한 재생산은 강조하는 '변증법적 자연주의'를 반대하고 차이를 통한 자기증식으로서 생성(becoming)을 강조하도록 한다 (Jones, 1999: Joff, 1999).

실천적 함의로서, 들뢰즈의 행동학과 리즘적 자연주의는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의 존재역량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조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이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실존양식의 창출을 추구하도록 한다. 그의 행동학에 의하면, 모든 존재자들은 자신의 존재역량이 증대되는 원인이거나 조건을 적합하게 인식하고 이를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초월적 권력의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 개체의 역량이 좌우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들뢰즈에 의하면, 이러한 존재역량의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리즘적 접촉을 통한 저항으로 제시된다. 그가 제시한 바와 같이, 리즘적 접촉에서 접촉은 이질적인 벡터들의 결합을 통한 '집단지 단수화' 과정이며, 이러한 이질적 접촉의 기회는 저항의 새로운 국면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 리즘은 "기호적인 고리, 권력의 조직 및 상황 등을 예술, 과학, 사회적 투쟁들과 관계 속에서 끊임 없이 접속"시키는 정치적 저항을 가능하게 한다 (7).

이와 같은 들뢰즈의 행동학과 리즘적 자연주의는 예로 심층생태학, 특히 생물평등주의와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네스의 생태철학과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지만, 또한 더 많은 상이성을 가진다 (Hayden, 1997). 특히 이들은 자신의 자연주의적 사고를 위한 준거로서 스피노자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Naess, 1977). 즉, 스피노자적 전통 속에서, 네스가 '다양성과 공생'의 원칙, 그리고 '복잡성'의 원칙 등을 제시하면서, 이들은 자연의 근원적인 '잠재력'이며, 이러한 잠재력의 실현은 다원적인 것이며 질적으로 상이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Naess, 1973, 1989). 그는 들뢰즈와 매우 유사한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네스는 이러한 다양성, 공생, 복잡성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기 보다는 포괄적인 자연과의 일체화 즉 자아실현을 통해서만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Naess, 1989, 200-202). 이러한 네스의 주장은 '내우주를 반영하는 소유주', 즉 자아실현을 통해 '최상의 전체'를 반영하는 각 자연적 개체라는 사고에 근

거를 둔다 (최병두, 2001). 이 사고는 스피노자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일의성의 평면에서 추구되는 '내재성의 윤리'라는 들뢰즈의 개념과는 상이하다. 네스의 이러한 사고는 차이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로 이어진다.

네스는, 만약 일체화의 강력한 (즉 영성적인)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단지 부정적 무차별성만 남게 된다는 의미에서 '무차이'(indifference)를 가정한다 (Naess, 1989, 174). 다른 한편, 네스는 차이실현을 통해 개인적 자아와 자연의 대차아는 동일성의 거울에서 서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차이를 부정하기도 한다. 달리 말해서, 네스는 탈구조주의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구조적 '차이'의 개념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고, '차이'가 단지 생물중심적 평등에 관한 인지를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성, 공생, 복잡성, 그리고 차이 등에 관한 네스의 개념화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심층생태학은 자연을 대차아로 절대화시키고 이러한 자연과의 일체화를 강조하게 됨에 따라 자연의 내재적 가치, 나아가 '자연으로의 회귀'를 강조하는 자연 정초주의 또는 자연 신비주의에 공개적으로 짐차하게 되는 한계를 드러낸다. 들뢰즈 또는 보다 포괄적으로 탈구조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심층생태학의 위험스러운 주장들은 대안적 담론과 실천의 창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끝으로 심층생태학은 이러한 자연 신비주의에 호소하면서 인류중심주의를 부정하면 합수목, 생태위기를 유발하는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과 현실 참여 정치를 위한 함의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4. 차이와 공생으로서의 환경정의

위의 주장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심층생태학의 네스와 탈구조주의의 들뢰즈는 수많은 철학적 준거들 가운데에서도 공통되게 스피노자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다원성과 공생, 복수성 등에 관한 원칙 등은 양자 모두의 이론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심층생태학은 '차이'의 의미를 무시함으로써 대차아(Seit) 또는 대자연(Nature)을 가정하고 때로 자연을 초월적 존재로 신비화시키면서 자연과의 일체

성=자아실현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논리적 및 정치적으로 현실 사회의 생태운동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반면, 들뢰즈의 행동학과 리좀적 자연주의는 이질성, 다원성(복수성), 공생 등의 개념을 차이와 관련시켜 이해함으로써 초원성의 철학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정신분열적 문화를 비판하고 리좀적 전파에 기초한 생태정치를 강조할 수 있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차이'의 개념을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들뢰즈의 자연주의 철학처럼, 차이와 공생을 통한 끝없는 생성적 과정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존재론적 탐구에 기초하도록 함으로써, 생태학을 심층생태학처럼 자연을 신비화하거나 또는 인간을 '탈정치화'시키지 아니하고, 생태·환경윤리 또는 보다 좁게는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생태적으로 존재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 전향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정의의 개념 또는 이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정의'의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서구 사회의 근대성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이며, 어떤 보편적 윤리를 지향하거나 그 자체로서 보편적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환경정의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정의'의 개념은 다양한 철학적 전통 속에서 각기 다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현실의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각자 다른 기준이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병두, 1998b). 이러한 점에서 (**환경**)정의 나아가 보편적 생태윤리의 추구는 반모더니티의 관점에 있는 탈구조주의자들에 의해 비판되거나 부정될 수 있다. 특히 탈구조주의자들은 모든 담론적 지식은 권력과 연계되어 있으며, 보편적 윤리를 주장하는 도덕성은 그 자체로서 권력의 구조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문제는 생태담론 또는 환경윤리에 대한 분석에서 어떤 종류의 기준이나 원칙 없이 그러한 비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차이'의 개념이 푸코나 들뢰즈와 같은 탈구조주의자들의 비평에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로와 그리슨(Low and Gleeson, 1998, 38)이 주장한 바와

같이, “그들이 암묵적으로 또는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가치의 준거들 가운데 하나는 ‘차이’이다. 차이의 인정은 초월성의 끝 또는 사회적 무기력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해소와 행위의 규제를 위하여 우리 인간성에 대한 격렬한 규칙을 더 훌륭하게 탐구하도록 해야 한다. 상이한 문화적 규범의 다원성의 인정은 실제 보편적 원칙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제공하는 문화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한다. 특이성, 판단의 맥락의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는 보편성, [환경]정의의 중요성에 있어 축소로 이어질 필요가 없다”.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 상에서, 우리는 차이의 개념과 더불어 공생의 개념으로 포스트모던 환경정의론, 나아가 환경정의론 일반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들뢰즈를 제외한 다른 대표적 탐구주의자들인 생태학 또는 보다 좁게 환경정의에 관해 직접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지라도, 이를 위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제 탐구주의 또는 보다 포괄적으로 포스트모던 입장, 특히 생태담론의 분석을 통해 생태학에 적용될 수 있는 정의론이 제시되기도 했다. 우리는 포스트모던 입장에서 특히 ‘생물지역적’ 맥락으로 ‘차이’를 이론화하고자 한 체니(Cheney, 1989, 1990, 1994)와 이에 대한 비평가들(Frodeman, 1992; Smith, 1993) 간의 논쟁을 살펴본 후, 들뢰즈의 저작들에서 제시된 공생과 차이의 개념을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1) 포스트모던 환경정의와 생물지역주의

체니의 연구는 포스트모던 입장(특히 데리다와 푸코의 입장)에서 자연에 관한 담론을 유희화하고 또한 맥락적 차이를 강조하고자 하는 시도로 요약된다. 그는 포스트모던 및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근본환경론, 특히 심층생태학을 고찰한다. 그는 근본환경론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심층생태학이 타자성의 극복에 관한 논의에서 ‘형이상학적 틀’에 의존한다고 비판한다. 즉 차이의 존중(즉 대안적 관점과 생활양식의 상이성에 관한 승인)에 기초하는 페미니스트 주장들과는 달리(Cheney, 1990, 1994), 심층생태학은 다양성과 복수

성을 인정하지만 이에 합의된 차이를 적절히 이론화하지 못함으로써 총체화의 담론에 빠지게 되었다. 체니에 의하면, 총체화(totalizing) 담론이란 특정한 장소 및 맥락에서 피리되어 추상화된 이론의 형태를 취하며, 보편화되어 비맥락적이며, 내적으로 자율적인 논리와 문법을 보유한다. 오늘날 환경위기는 이러한 총체화 담론 및 이를 발달시킨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된다(Cheney, 1989, 122). 보다 일반적으로 총체화 담론은 차이를 인지한다고 한지라도, 이 차이(또는 불명등)가 어떤 보편적 또는 추상적 기준이나 원칙에 호소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체니는 심층생태학이 심폐한(또는 단지 부분적으로) 달성한 ‘차이의 이론화’를 위하여 비총체화 또는 반(反)총체화 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체니는 이러한 총체화 담론에 반대하여 신화적 담론 및 이에 부수되는 몇 가지 개념들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신화적 서사들은 추상적 이론에 대해 ‘우선적’인 대안이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특정한 맥락을 반영하며 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생태윤리적 가치의 결정은 맥락 또는 ‘장소’라는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로서, 근대 사회의 식민지 문화에서 외래의 지배언어(즉 총체화 담론)와 이것이 명령하는 실체는 원주민과 그 자연환경간의 미묘한 균형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역외에서 도입되어 특정 장소에 뿌리를 두지 못하는 총체화 담론과는 달리, 신화적 담론은 장소 또는 특정한 자연적 지역에 근거를 둔다. 즉, “우리의 위상, 우리의 임지는 우리 삶의 지리에 근거하기를 통해 달성된 비근본적 서사와의 관계에서 이해”되며, 이러한 점에서 그는 “생물지역(bioregion)은 서사를 근거지우는 한 방법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Cheney, 1989, 126, 128)⁴⁰ 이러한 신화적 담론의 근거가 되는 장소 또는 생물지역은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연계된다. 오늘날 문화와 자연에 만연한 ‘지배의 논리’는 ‘타자’로의 타자(the other as Other)에 관한 관심의 부족을 드러낸다(Cheney, 1990, 6). 체니는 정당한 필요와 주장의 억압 또는 타협에 대한 어떤 압박 없이 차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타자성을 존중할 필요를 강조한다.

이러한 체니의 주장들은 총체화 담론을 부정하고 현실의 맥락에서 차이를 이론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체니(Cheney, 1989, 120)는 심층생태학을 포함하여 근본환경론이 오늘날 생태위기는 "새로운 상황"을 "처리하는데" 기여하기, 즉 이 상황에 경험적 및 도덕적으로 일관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현재적", "현재적"의 메카니즘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러한 지적에 반대하여, 어떤 이론이 억압적 또는 비억압적 틀에 기초하는가를 구분하는 문제는 인식론적이라고 보다는 정치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Frodeman, 1992). 그러나 특정 담론이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가진 기준에 따라 억압적(즉 비생태적)인가 또는 비억압적(즉 생태적)인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억압적인 개념적 틀과 비억압적인 개념적 틀 간을 구분한 워렌(Warren, 1990, 1994)의 주장을 인용하여, 심층생태학적 환경정의론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¹⁷⁾. 즉 왜냐하면 억압적 개념적 틀을 성격지우는 3가지 양상들로서, ①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 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는 '가치-계층적 사고', ② 보편적이고 내포적이 아니라 대립적이고 배타적인 '가치 이원론', ③ 종속의 정당화를 유도하는 주장의 구조를 가진 '지배의 논리' 등을 제시한다. 심층생태학이 비록 명시적으로 종속을 정당화시키는 지배의 논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명 인류중심주의에 대립하는 생태중심주의라는 점에서 '가치이원론'이며, 소자아에 비해 대자아(자연)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계층적 사고'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체니는 차이와 타자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의 윤리적 준거로서 장소 또는 맥락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즉, 그의 견해에 의하면, 각 집단들의 역사와 세계의 각 장소는 독특하며, 그들의 관점은 모든 타자들과 동일하게 측정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타협에 대한 어떠한 담력 없이 차이가 존재하도록 함으로써, 각 실체는 그 자신의 개별적 존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완전한 여지를 부여받게 된다¹⁸⁾. 나아가 체니는 환경윤리를 위한 기초로서 생물지역적 서사를 강조하면서, 환경정의는 자연적 지역으로서 장소와 관련된다는 점을 강조한

다. 즉, 그에 따르면, "생물지역은 자아의 사고를 본질화시키지 않더라도 서사를 근거지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 생물지역주의는 거부정적 문화의 다양한 '근거지움'에 전형적인 본질화와 총체화 없이 자아와 공동체의 구축을 근거지울 수 있다" (Cheney, 1989, 132-134). 이러한 생물지역적 서사의 발달은 들뢰즈의 리츨즈의 만큼의 만큼 풍부한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포스트모던 세계의 과잉화 문제에 대한 한 해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니의 주장들에서 몇 가지 주요한 문제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차이를 존중하고 '모든 형태의 억압을 종결지우기' 위해, 반총체성 담론으로서 신화적 담론이 제안된다. 이러한 신화적 담론은 탈맥락화(들뢰즈의 용어로는 탈영토화)되어 추상화된 담론을 재맥락화(즉 재영토화)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맥락성으로의 회귀에 관한 유포피아적 견해와 관련된다¹⁹⁾고 비판되기도 한다. 즉 '이 견해는 원시적 감정성의 순응은 [근대성에 의해] 함의적으로 부여된 구조에 대한 해독제라는 의미에서 낭만주의적 관점을 공유한다'고 비판될 수 있다 (Smith, 1993, 9). 맥락성(또는 장소성)으로의 회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자연(원시성 즉 순수성)으로의 회귀이다. 다른 한편, 신화적 서사에 관한 체니(Cheney, 1989)의 용호는 '시원적'(primordial) 언어와 '타락한'(fallen) 언어간을 구분한 하이데거에 의존하지만, '존재의 기원(또는 집)'으로서 언어라는 하이데거의 개념화는 언어의 순수성 또는 근본성에 대한 지나친 기대라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둘째, 환경정의의 위한 기준으로 맥락과 장소가 강조되고, 나아가 진정한 생태적 담론으로서 생물지역적 서사가 제시된다. 장소에 근거한 경험과 이에 기초한 생물지역적 서사는 담론구성의 인식론적 관점에서는 어떤 정당성을 가진다. 즉, 참된 생태적 담론은 "[장소적] 경험에서 성장하여 이를 집합시킬 수 있는 언어, 즉 자아와 세계간을 중재하면서 그들의 상호교묘, 양자의 지식-평가와 예시로 충만한 지식-을 담지하는 언어"로 이루어진다 (Cheney, 1989, 132).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문제는 어떤 담론의 진정성 또는 위험성은 총체성(또는 추상성) 담론인가의 여부 보

다는 이의 비맥락적 응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니도 사실 이 점을 인정한다. "총체화 담론의 가능성은 개념과 이론 그들의 페르다임 배경으로부터 추상화되어 다른 곳에 응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 (Cheney, 1989, 126). 즉 생물지역적으로 장소에 뿌리를 둔 언어가 생태적으로 더 유의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 생태계의 공생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경험과 합의가 전제된다. 달리 말해서, 환경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맥락적 장소 자체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의 공생적 경험과 이에 기초한 생물지역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생물지역화에 기초한 제니의 개념화는 '자연적' 맥락의 중요성에 큰 비중을 두지만, 인문사회적 맥락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삶과 이를 반영한 탈맥락적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물지역적 맥락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은 생물지역적 (또는 신화적) 담론들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었던 그 맥락에 관한 연구를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순수한 장소에의 준거 또는 원시적 생물지역으로의 회귀는 그 순수성이나 원시성이 파괴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오늘날 도시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시사점을 가지지 어렵다. 도시 환경은 생태적 본능에 따라 회귀하는 연어가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며,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 빈자에 대한 부자의 생태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Smith, 1983). 따라서, 인식론적 관점에서 담론의 진정성과 현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적실성 간의 결합, 그리고 재맥락화(재영토회)를 추구하기 위한 생물지역적 맥락과 탈맥락화(탈영토회)를 유발한 현대 도시사회적 맥락 간의 연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생태담론, 특히 환경정의론은 '차이를 만드는 차이'에 대해서도 민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될 수 있다 (Frodeman, 1992, 307).

2) 들뢰즈의 자연주의에서 환경정의

탈구조주의적 철학은 이러한 제니의 주장, 또는

생물지역주의가 강조하는 차이의 개념을 위한 거대한 담론적 근원을 이룬다. 특히 들뢰즈의 행동학과 리좀적 자연주의는 이와 같이 차이와 맥락에 초점을 둔 생물지역주의적 주장들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하고 풍부한 사유들을 가지고 있다. 사실 탈구조주의의 철학에서 차이는 그 중심을 형성한다. 데리다, 푸코, 그리고 들뢰즈 등의 탈구조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차이는 물론 단순한 의적, 양적 차이가 아니라, 질적이고 내적 차이이다. 이러한 차이는 역동적, 구성적, 생성적이며, 이들의 철학은 존재를 차이로, 적실적인 시간을 차이로 만드는 반복으로, 확장으로서의 공간을 차이로 만드는 힘의 장(場)으로 이해하는 해체(데리다) 또는 생성(들뢰즈)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서구 철학의 이분법적 구분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구분 자체의 의미마저 부인한다. 푸코에 의하면, '차이는 무법적 사유의 해방을 통해서만 해방될 수 있다'. 특히 들뢰즈의 철학 일반은 차이(그리고 공생)의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다. 들뢰즈는 생의 철학을 강조하는 <베르그송주의>(Deleuze, 1966)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이르기까지 차이 및 이와 관련된 개념들의 존재론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의 행동학과 리좀적 자연주의는 이러한 내적 차이와 리좀적 공생을 설명한 틀이라고 할 수 있다.

탈구조주의, 특히 들뢰즈의 차이와 공생의 개념이 환경정의의 요소 또는 이를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만약 들뢰즈가 강조하는 차이와 공생을 존재론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이들은 당연히 사회·생태적 존재의 해방을 위한 환경정의의 요소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환경정의의 개념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들뢰즈의 사유에서 제시된 차이의 개념이 최소한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들을 포함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차이는 단순히 외적, 양적 차이가 아니라 질적, 내적 차이로 이해된다. 이러한 차이는 두 사물들 사이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강도의 유동적 연속 또는 반복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된다. 즉 차이는 계열의 개별적 항들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실점들(instances)의 계열 내에서 변화 또는 강도 내의 변이(variation)로 이해된다. 이러한 차이의 개념은 예

로, 행동학에서 일하는 말은 경주용 말보다는 일하는 소와 더 가까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차이는 반(反)초월적 개념으로, 차이를 인지하는 것은 초월의 깊은 환상을 표층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의 개념은 예로 신 즉 자연이라는 실체의 일의성에 관한 스피노자의 개념 등에서 도출된다. 즉 자연의 모든 양태들은 단일한 실체의 표현이며, 실체가 양태로 표현되는 한 각각의 양태들 간의 차이가 바로 실체이다. 실체로서 자연은 개별 생명체들의 차이를 배분하고 인도하는 총체가 아니라, 상이한 생명체들을 존재하도록 하는 차이 자체로서 모든 존재들을 포괄하는 내재성의 장으로 이해된다. 셋째, 이러한 내적 차이 또는 일의성의 차이는 생명의 진화과정, 창조적 고안의 근원으로서 시간(그리고 공간)의 긍정적 힘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차이는 공간적으로 내재성의 평면에서 관계들의 형성 과 변이의 배치 (또는 공생적 상호되기) 그리고 시간적으로 반복의 양상 속에서 변이와 생성의 새로운 창조적 탈주를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의 개념은 니체의 철학에서 공간적으로 권력의 장 또는 의지, 그리고 시간적으로 영원회귀의 개념에 조응한다. 니체와 들뢰즈에게 있어 긍정적 차이를 갖는 것만이 회귀한다고 할 때, 이러한 회귀란 어떤 것의 긍정적 생성 내지 생산의 반복을 통한 자연의 진화를 의미한다.

공생(symbiosis)은 이러한 차이의 공간적 (물론 시간과 결합된) 생성으로 이해된다. 들뢰즈의 철학에서 공생의 개념은 차이의 개념만큼이나 난해하다. 우선, 이해되어야 할 점으로, 들뢰즈의 공생 개념은 비환원적·비목적론적으로, 심층생태학의 자아실현 개념에 합된 대자연과의 일체화로서 '초월적' 공생과는 상이하다. 차이와 반복에 기초한 들뢰즈의 진화론은 기원으로서 회귀도 초월적 목표의 발전도 부정한다는 점에서, 비환원적·비목적론적이다. 이러한 진화는 들뢰즈와 기타리가 다양한 환경과 유기체들 간의 '공생적 연대' 또는 '공생적 진화'라고 지칭한 것을 포함한다 (Hayden, 1997, 193). "만약 진화가 어떤 진정한 생성을 포함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상이한 규모와 범위의 존재들을 활동시키는 공생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다" (Deleuze and Guattari, 1987[1986],

10). 수목의 이미지에 따른 인간과 자연간의 구분, 그리고 생물과 비생물(인간과 기계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과의 구분은 리즘의 이미지에 따른 공생의 개념으로 대체된다. 예로, 오늘날 인간의 광물 이용은 지구상에서 30억년에 걸쳐 내적 범용들(compasses)을 위한 박테리아의 자철광 이용을 따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생명가능체의 경계에서 생물과 비생물의 공생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기술의 역사에서 공생이 담당한 중요한 역할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생물학에서, 공생은 주체의 인류중심적 결정 그리고 오염에 대한 영장류적 두려움에 관한 많은 것을 드러내는, 이상하고 어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공생은 유기체의 경계에 도전하기 때문에, 생물학에서 파괴적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Pearson, 1997, 187).

그러나 들뢰즈의 내적 차이와 공생의 개념에 의하면, "단지 퇴화된 것만이 진화"한다 (Deleuze, 1994[1968], 118). 예로, 태생학은 단지 태아(embryo)만이 유지될 수 있고 성인으로 분화할 수 있는 생명적 운동과 비틀림(torsion)이 존재함을 예시한다 (Hansen, 1999). 이 점은 생명가능체(the livable)의 경계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공간-시간적 역동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생명가능체의 경계어물기라는 점에서, 공생은 상호되기를 의미한다. 공생은 흔히 상호 수해적이고 협력적인 호혜적 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상이한 유기체들의 공기능화(co-function)이다. 들뢰즈의 리즘적 자연주의에서 공생의 개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유기체들 간의 상호되기(co-becoming)를 전제로 한다. 들뢰즈는 그 예로서 말벌과 난초의 상호작용을 제시한다. "난초는 말벌-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난초의 말벌되기(wasp-becoming of the orchid) 그리고 말벌의 난초되기, 즉 이중적 포획이 존재한다. ... 말벌은 난초의 재생산적 장치의 일부가 되고, 동시에 난초는 말벌의 성적 기관이 된다". 공생의 개념은 종들 간의 경계가 항상적으로 이행하며, 유동하며, 삼투적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의 개념은 "관념적 사상의 서양적 전통 전체에 대한 진정한 도전장을 제기하며, 리즘적 실천(rhizomatic praxis)을 채택하는 역할을 제안한다" (Pearson, 1997, 182).

이러한 리즘적 실천의 개념은 들뢰즈의 철학에서 영토화/탈영토화 그리고 유목주의로 나아간다. 들뢰즈에 의하면, 환경과 유기체의 경계가 점차 분명해 짐에 따라, '한계'의 측면이 아니라 개체 내로의 전이와 개체 밖으로의 전이의 측면에서 영토를 정의하는 두 개의 과정이 발생한다. 이 두 과정들은 영토화(territorialization)와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라 불린다. 이 과정은 어떻게 한 생명체가 어떤 것을 자신의 정체성과 연관시키고, 그 정체성이 병용과 생성들에 의해 점유되고 왜곡되는가를 보여준다. 예로, 새가 나뭇잎의 패턴을 사용해서 등지를 지을 때, 그 패턴은 새가 그 자신과 자신의 환경 사이의 구분을 끌어내는 방식을 표현하지만, 그 패턴은 또한 그 적대적 환경에 대한 새의 의존을 표현한다. 리즘구조는 "다양성이 다른 것과 접촉됨으로써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바 추상적인 선에 의해, 탈구선 내지 탈영토화의 선에 의해 정의"되며 (Deleuze and Guattari, 1987, 9). 리즘적 공생관계는 이러한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과정을 의미한다¹³⁾. 들뢰즈에 의하면, "탈구의 선 혹은 탈영토화의 선, 늑대-되기(devenir-loup: becoming-wolf), 비인간-되기(becoming-inhuman), 탈 영토화된 강도들(deterritorializing intensities)"(32) 등은 미시정치적 목표이며 전략이 된다. 즉,

리즘을 만들지, 탈영토화에 의해 그 영토를 넓히지, 탈구선을 일관성의 구도 전체를 포괄하는 추상기계가 되는 지점으로부터 확장하지, 일단 첫번째 식물로 가서, 그 점에서 시작된 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조심스럽게 관찰하라. 비가 세맛들을 멀리 날라 주었으리라. 물이 새긴 수로를 따라 당신은 물의 흐름을 알게 되리라. 이 방향을 따라가서 당신의 식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식물을 찾는다. 그 두 식물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다. 훗날 나중의 것이 자신의 세를 뿌리게 될 때, 당신은 이 각각의 식물들에서 발원하는 물의 흐름을 따라 당신의 영토를 넓혀갈 수 있으리라 (Deleuze and Guattari, 1987, 11).

이와 같이, 리즘적 실천으로서 미시정치는 이렇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낯선 (즉 차이를 가진) 영토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 즉 들뢰즈가 '유목주의'라고 한 것을 전제로 한다. "유목은 다른 삶의 영토를 찾아, 다른 삶 자체를 찾아, 다른 사유, 다른 가치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이고, 그에 필요한 한 어디로든 쉴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앉아 있는

자리에서조차 '자유의 새로운 공간'을 찾아 끊임 없이 탈영토화하는 삶 그 자체다" (이진경, 2001). 이와 같이, 들뢰즈의 미시정치는 차이와 공생에 함의된 환경정의를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유목인이 되기를 요구한다.

5. 결론

우리는 오늘날 심각한 역사-지리적 조건하에 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환경적 위기는 어떤 특정 원인에 대한 부분적 교정지 아니라 근대 문명 전체에 대해 비판적 태도와 이의 극복을 위한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19세기 자본주의에 대한 맑스의 주장보다도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생태위기는 인류를 치명적 조건으로 물고 가고, 또한 동시에 부단히 새로운 양상으로 문제를 제기하도록 어떤 '윤리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 생태위기에 관한 분석이나 담론은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위기의 배경이 되었던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과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윤리를 추구하는 포스트모던 사상에 관한 연구와 직접 관련 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에 관한 분석을 통해 어떤 '비판적' 생태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모더니티에 기초한 과학기술적 문명화는 모든 국지적으로 생물지역적 조건들을 파괴하면서, 나아가 초국적, 초인종적, 초문화적인 생태윤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위기에 대해 우리가 물어야 하는 마지막 질문은 초월적인 형이상학이나 문화종속적인 신앙을 전제하지 않고서도 공동의 보편적 정의 원칙에 근거한 생태적 윤리를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 역압적인 권력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어떤 보편적 환경정의의 이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비판적 생태학과 새로운 환경정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탈구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이나 저술들에 내포된 포스트모던 생태학과 환경정의론을 고찰하고자 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주체/객체, 인간/자연간의 데카르트적 이분법

을 함의한 근대성에 저항하는 자연주의적 철학의 전통에 서고자 한다. 이들이 강조하는 차이는 바로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핵심을 이룬다. 특히 들뢰즈의 철학은 새로운 비판적 생태학을 위한 풍부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차이와 공생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들뢰즈의 행동학과 리좀적 자연주의는 자연과의 일체성을 통한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심층생태학이나 차이를 근거지우기 위하여 맥락성 즉 장소성을 강조하는 생물지역주의에 기초한 환경정의의 문제점이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나아가 그의 철학에 함의된 환경정의론은 단순히 수동적인 윤리로서가 아니라 보다 능동적인 정치로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들뢰즈에 따라, 진보적 시민운동, 특히 생태·환경운동이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연·타자와의 공생적이며 상생적인 ‘공명’을 가능케 하며, 차이들을 확실화시키면서도 부정부적으로 파편화되는 대신 리좀적인 연결망을 쉼새 없이 생성시키는 새로운 방법들이 창안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될 수 있다 (심광현, 1999, 488-489). 역사지리적 유희론의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부정하는 하비도 이러한 주장을 사실상 승인하고 있다. 즉 “‘축적’을 위한 ‘축적’의 과정이 줄어들지 않는 세계에서 ‘차이’의 장소들의 생산은 계속된다. ... 역사-지리적 차이의 생산을 재독해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은 미래 장소의 구축을 위한 가능성을 해방시키는 중요하고 기본적인 단계이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리고 형이상학적으로 해방적 장소는 모든 진보적 사회-생태정치적 불가피한 일부이다” (Harvey, 1996, 323).

환경정의의를 위한 사회-생태정치는 인간들간, 인간과 자연간, 자연의 모든 구성물들간 차이와 공생을 위한 리좀적 연결망을 끊임없이 생성하면서 그 지평을 시·공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다.

註

- 그러나 게르(Gare, 1996)에 의하면, 리오타르 자신은 정의가 오늘날과 같이 파편화되고 세계화된 세계에서 어떻게 재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통찰력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된다.
- 이러한 자각은 생태적 자아의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푸코의 이러한 주장은 심층생태학에서 자연과의 일체화를 통한 자아실현에 내재된 문제점(즉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최병두, 2001).
- 들뢰즈의 철학에 관한 개관으로 이정우(1996), 진태원(2000), Bogue(1989) 등 참조.
-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자연 및 환경윤리에 관한 연구로 Lloyd(1980: 1994) 및 Collins (1984) 등 참조.
- 또한 들뢰즈는 자연을 신성한 목적성, 정적 본질, 초월적 도덕의 자리로 해석하는 것을 배제하는 자연의 탈신격화를 요청하는 니체를 따른다. 니체의 환경윤리 및 환경정의론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위해 Hallman(1991), 최병두(1998a) 참조.
- 들뢰즈는 빠름과 느림의 관계, 변용과 정서의 관계 각각을 동학적(cinetique) 측면과 역학적(dynamique) 측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리학의 용어를 빌려서 경도와 위도(또는 세로와 가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Deleuze, 박기순 역, 1999, 189).
- 이러한 인용문에서 쪽수만 적은 경우는 이 책의 영역문의 쪽수이다. 이 책은 매우 난해하기 때문에 아직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철학연구소 ‘너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초역본을 많이 참조했다.
- 하비(Harvey, 2000)가 제시한 ‘지도적 정체성’(catographical identity)은 이 원칙과 어떤 의미에서 상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 들뢰즈에 의하면, 서구 사상에 초월성의 철학은 데카르트와 그 이전의 플라톤의 동일성의 철학과 헤겔의 부정성의 철학에 공동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사조는 실제 그가 초월성의 구도(plan de transcence)라고 부르는 하나의 뿌리에 연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초월성의 구도란 근거와 근거지어지는 것들 간의 존재론적 분리를 상징한다 (진태원, 2000).
- 생물지역주의에 관하여, 문순홍(1999), McTaggart(1993) 참조.
- 일반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정의의 개념을 부

- 정하지만, 특정하게 억압(예로, 가부장적 억압)의 극복을 위하여 차이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던 정의 이론으로 Young(1990) 참조, 또한 Patton(1986) 참조.
- 12) 이러한 견해는 다문화주의론자들과 일정한 연관성을 가진다. 즉 후자에 의하면, 상이한 문화와 관점들은 평등한 유의성을 가지며, 따라서 타자의 문화와 관점에서 상호 승인함으로써 자유롭게 된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흔히 상대주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판되기도 하지만, 문화와 지식의 맥락적 접근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 13) 즉, "오르키데는 말벌의 모사(caïque)인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탈영토화되지만, 말벌은 이 이미지 위에서 재영토화된다. 말벌은 오르키데의 재생산 장치 속에서 일부가 됨으로써 스스로 탈영토화된다. 그러나 다시 말벌은 오르키데의 꽃가루를 옮김으로써 그것을 재영토화한다. ... 오르키데의 말벌-되기, 말벌의 오르키데-되기 ... 여기서 한 항의 탈영토화는 다른 하나의 재영토화를 보장하며, 두 개의 생성/소멸기는 서로 연결"된다 (Deleuze and Guattari, 1987, 10).

文獻

- 구승희, 1999, "자연의 탈마법화와 휴머니즘의 재마법화: 현대 생태사상의 자연-신비주의 비판", 안동대학교 국제학술대회 발표원고.
- 김재민 역, 1996, 베르그송주의, 문학과 지성사 (Deleuze, G., 1966, *Le Bergsonisme*, PUF, Paris).
- 문순홍, 1999, "시간, 공간 그리고 생물지역론",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담론의 생태학, 숲, 290-331.
- 박기순 역, 1999, 스피노자의 철학, 민음사 (Deleuze, G., 1970, *Spinoza Philosophie pratique*, PUF, Paris).
- 심광현, 1999, "들뢰즈와 창조성의 정치학", 문예이학, 6, 469-490
- 이소영 역, 2000, "에코페미니스트 평화정치학", 이소영 외 역, 자연·여성·환경·한신문화사, 207-236 (Warren, K.J., 1994, *Toward an ecofeminist peace politics*, in K.J. Warren (ed), *Ecological Feminism*, Routledge, London).
- 이정우 역, 1995, 들뢰즈와 가타리, 새길 (Bogue, R., 1989, *Deleuze and Guattari*, Routledge, New York).
- 이정우, 1996, "질 들뢰즈, '철학자들 중의 철학자'", 철학과 현실, 28, 138-148.
- 이정임·윤정임 역, 1995, 철학이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Deleuze, G., and F. Guattari, 1991, *Ue'est-ce que la philosophie?* Minuit, Paris).
- 이진경, 2001, "유목주의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가?", 미술세계, 195 (2월호).
- 전태원, 2000, "들뢰즈", 사회비평, 24, 117-129.
- 정화열, 1996, "생태철학과 보살핌의 윤리: 다시 거주할 만한 지구를 위하여", 녹색평론, 29 (7-8월호).
- 최병두, 1988, "역사·권력·공간: 미셀 푸코와 역사지리학", 지리학 논총, 14, 119-140.
- 최병두, 1998a, "Ecology and naturalistic justice in Nietzsche", 대한지리학회지, 33(3), 411-434.
- 최병두, 1998b, "생태학과 환경정의", 대한지리학회지, 33(4), 499-523.
- 최병두, 2000, "포스트모더니즘과 도시·지역연구", 한국공간환경학회 편, 공간의 정치경제학, 아카넷, 149-172
- 최병두, 2001, "심층생태학과 생물평등 및 자아실현으로서의 환경정의" (미간행).
- 하태환 역, 1995, 감각의 논리, 민음사 (Deleuze, G., 1981, *Francis Bacon: Logique de la sensation, La Diff rence*, Paris).
- Cheney, J., 1989, *Postmodern environmental ethics: ethics as bioregional narrative*, *Environmental Ethics*, 11, 117-34.
- Cheney, J., 1990, *Nature and the theorizing of difference*, *Contemporary Philosophy*, 13, 1-14.
- Cheney, J., 1994, *Nature/theory/difference: Ecofeminism and the reconstruction of environmental ethics*, in Warren, K.J. editor, *Ecological Femin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58-78.
- Collins, J., 1984, *Spinoza on Natur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Carbondale and Edwardsville.
- Conley, V.A., 1997, *Ecopolitics: The Environment in Poststructuralist Thought*, Routledge, New

- York.
- Darier, E., 1999, Foucault against environmental ethics, in E. Darier (ed), *Discourses of the Environment*, Blackwell, London.
- Davidson, A., 1986, Archeology, genealogy, ethics, in D.C. Hoy (ed), *Foucault: A Critical Reader*, Blackwell, Oxford, 221-233.
- Deleuze, G., 1968, *Difference et repetition*, PUF, Paris; trans. P. Patton, 1994, *Difference and Repetition*. Columbia UP, New York.
- Deleuze, G., and F. Guattari, 1980, *Mille Plateaux*, Minuit, Paris; trans. B. Massumi, 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Univ.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Derrida, J., 1994, *Specters of Marx*, Routledge, London.
- Escobar, A., 1996, Constructing nature: elements for a poststructural political ecology, in R. Peet and M. Watts (eds), *Liberation Ecologies: Environment, Development, Social Movements*, Routledge, London, 46-68.
- Foucault, M.,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Pantheon Books, New York.
- Foucault, M., 1985, *The Use of Pleasure*, Pantheon Books, New York.
- Foucault, M., 1988, The ethic of care for the self as a practice of freedom, in J. Bernauer and D. Rasmussen (eds), *The Final Foucault*, MIT Press, Cambridge Mass., 11-20.
- Frodeman, R., 1992, Radical environmentalism and the political roots of postmodernism: differences that make a difference, *Environmental Ethics*, 14, 307-19.
- Gare, A.E., 1995, *Postmodernism and the Environmental Crisi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Guattari, F., 1989, The three ecologies. *New Formations*, 8 (Summer), 131-147.
- Hallman, M.O., 1991, Nietzsche's environmental ethics, *Environmental Ethics*, 13, 99-125.
- Hansen, M., 2000, Becoming as creative involution?: contextualizing Deleuze and Guattari's biophilosophy, *Postmodern Culture: An Electronic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Criticism*, 11(1), (<http://www.iah.virginia.edu/pmc/text-only/issue.900/11.1contents.html>)
- Harvey, D., 2000, Geographical knowledge and political power, paper presented at the 29th 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 (14-18, Aug. 2000, Seoul).
- Harvey, D.,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Blackwell, London.
- Hayden, P., 1997, Gilles Deleuze and naturalism: a convergence with ecological theory and politics. *Environmental Ethics*, 19(2), 185-204.
- Joff, 1999, The possibility of an antihumanist eco-anarchism, paper displayed at the electronic forum at http://melior.univ-montp3.fr/ra_forum/en/joff/antihum.html
- Jones, A., 1999, dialectics and difference: against Harvey's dialectical 'post-Marxism',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3(4), 529-555.
- Lloyd, G., 1980, Spinoza's environmental ethics, *Inquiry*, 23, 293-311.
- Lloyd, G., 1994, *Part of Nature: Self-Knowledge in Spinoza's Ethics*.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and London.
- Low, N. and B. Gleeson, 1998, *Justice, Society and Nature: an Exploration of Political Ecology*, Routledge, London.
- Luke, T.W., 1995, On environmentalism: geo-power and eco-knowledge in discourses of contemporary environmentalism, *Cultural Critique*, 31, 57-81.
- Luke, T.W., 1999, Environmentalism as green governmentality, in E. Darier (ed), *Discourses of the Environment*, Blackwell, London, 121-151.
- Lyotard, J. 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Manchester Univ. Press.
- Lyotard, J., 1989, Oikos, in *Political Writings*,

-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cTaggart, W. D., 1993, Bioregionalism and regional geography: place, people, and networks, *The Canadian Geographer*, 37(4), 307-19.
- Naess, A., 1973,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a summary, *Inquiry*, 16.
- Naess, A., 1977, Spinoza and ecology. *Philosophia*, 7(1), 45-54.
- Naess, A., 1989,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Patton, P. 1995, Post-structuralism and the Mabou debate: difference, society and justice. in M. Wilson and A. Yeatman (Eds.), *Justice and Identity: Antipodean Practices*, Allen and Unwin, St. Leonards.
- Pearson, K.A., 1997, Viroid life: on machines, technics and evolution, in K.A. Pearson (ed), *Deleuze and Philosophy: the Difference Engineer*, Routledge, London, 180-210.
- Peet, R. and M. Watts (eds), 1996, *Liberation Ecologies: Environment, Development, Social Movements*, Routledge, London.
- Quigley, P., 1992, Rethinking resistance: environmentalism, literature, and post-structural theory, *Environmental Ethics*, 14(4), 291-306.
- Quigley, P., 1999, Nature as dangerous space, in E. Darier (ed), *Discourses of the Environment*, Blackwell, London, 181-202.
- Rolston, H., 1992, Challenges in environmental ethics, in D.E. Cooper and J.A. Palmer (eds), *The Environment in Questions: Ethics and Global Issues*, Routledge, London, 135-146.
- Smith, M., 1993, Cheney and the myth of postmodernism, *Environmental Ethics*, 15(1), 3-17.
- Warren, K.J., 1990, The power and the promise of ecological feminism, *Environmental Ethics*, 12(2), 121-146
- Young, I. M.,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Zimmerman, M., 1994, *Contesting Earth's Fu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2001년 6월 6일 접수)